

부모님 자서전 써드리기 공모전

제목 : 최고로 자랑스러운 그 이름, ‘아버지’



학 과 : 경상대학 국제통상학부

학 번 : 52120959

이 름 : 최명환

제출일 : 2018년 5월 14일

<목차>

- 1장. 지독했던 가난에 자수성가를 꿈꾼 청년
- 2장. 결핍에서 배운 최선을 다하는 태도, 가난해도 꿈은 가난하지 않다.
- 3장. 꿈을 향한 첫 걸음, 그리고 첫 사랑
- 4장. 완벽한 설계도, 그러나 인생은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 5장. 설상가상, 인생 최대의 위기
- 6장. 죽고 싶어도 살아가야 할 이유, ‘가족’
- 7장. 속 값아 먹는 작은 아들 이야기
- 8장.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 9장. 아버지의 전성기
- 10장. 꿈을 이루신 아버지를 보며 꿈꾸는 아들
- 11장. 감사합니다, 아버지

1장.

지독했던 가난에 자수성가를 꿈꾼 청년

1962년 12월, 아버지는 강원도 한 시골 마을에서 4남매 중 첫째로 태어나셨습니다. 할머니는 6.25 전쟁으로 인해 수차례 피난을 다니시며 생계를 겨우 유지하는 형편이셨고 할아버지는 일본군의 무자비한 침략으로 7살 때에 모든 가족을 잃은 채 이 집 저 집을 떠돌아다니며 하루살이를 하며 사셨는데 그런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어 처음으로 갖게 된 자식이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어린 시절, 지독하게 가난했기에 할머니께서는 막노동, 청소 등 일을 가리지 않고 하셨고 할아버지는 늘 농사와 막노동을 병행하셨습니다. 이처럼 두 분이 힘들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늘 봐오며 자랐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성공하겠다는 꿈과 야망이 가득하셨습니다. 특히나 동네 주민들이 저희 집안을 가리켜 너무나 가난해서 형편이 없다고 흉을 볼 때마다 장남으로서 반드시 자수성가 하겠다는 꿈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입학시절부터 늘 성실하게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이었고 동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셨습니다. 자수성가에 대한 꿈 때문인지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당시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제가 재학 중인 있는 ‘단국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대학교 합격소식이 알려지자 저희 동네는 축제의 장이 되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큰 잔치를 여실 정도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아빠와 안은 채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옷 한 벌도 사주지 못하고 늘 동네에서 물려받은 옷이나 버린 옷들을 주워와 생활하는 가난 속에서도 불평, 불만 한 번 없이 잘 자라준 자식을 정말 대견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단국대학교 전자공학과에 등록금이 한 학기에 60만원 정도였는데 이러한 큰 금액을 저희 집안에서 부담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을 확인한 아버지는 할머니께 그냥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일자리를 찾겠다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께서는 가난 때문에 글조차 못 배우신 것이 늘 한이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장남의 대학 입학은 가로막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돈은 벌 수 있고 구할 수 있으니 무조건 대학에 들어갈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새벽엔 막노동을 나가시고 낮에는 유리창 청소를, 또 저녁에는 뽕튀기 장사까지 하시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온 가족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아버지는 힘겹게 대학에 들어가실 수 있었고 천안에서 자취 생활도 시작하셨습니다.

2장.

결핍에서 배운 최선을 다하는 태도, 가난해도 꿈은 가난하지 않다.

대학교 입학 후에도 ‘부모님을 위해 멋진 집을 짓고 자수성가 하겠다’는 아버지의 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해보는 자취생활이었고 강원도 땅을 벗어난 것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었지만 아버지는 늘 대학을 어떻게 합격했으며, 지금 대학을 다니기 위해 할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교통이 좋지 않아서 강원도에서 천안에 가려면 버스만 무려 여섯 번을 타고 반나절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께서 반찬을 해주려고 천안의 자취방으로 먼 길을 찾아가셨는데 자취방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주저앉아 펄펄 우셨다고 합니다.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수 있는 방 안에서 아무런 반찬도 없이 오로지 밥과 간장을 젓가락으로 찍어먹으면서 아버지께서 공부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보니 김치 통 하나만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니 곱팡이 핀 김치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곱팡이 핀 김치, 간장을 반찬으로 허기를 달래며 매일 10시간 이상씩 학업에 열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오로지 학업에 열중하셨고 단국대학교 전자공학과 200여 명 중 전체 3등에 해당하는 성적으로 대학을 성공적으로 졸업하셨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가난은 아버지의 꿈에 큰 가로막이 될 수 없었고 오히려 결핍은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배우도록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3장.

꿈을 향한 첫 걸음, 그리고 첫 사랑

1988년, 아버지께서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점, 저희 집안에 또 하나의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현재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에 단 한 번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전자와 통신 공부를 해왔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우리나라의 IT, 통신 산업을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리라는 꿈을 키워 오셨던 아버지께서 마침 내 그 꿈의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감출 수 없었고 아버지도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6개월 정도 지날 무렵, 매 순간 순간을 전투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아버지는 예상치 못했던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분과 본인 인생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분은 첫 눈

에 반했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4장. 완벽한 설계도, 그러나 인생은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을 약속한 시점부터 삶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경력에 대한 야망만큼이나 결혼 생활에 대한 계획도 확실했고 계획을 다 세운 뒤에는 그 즉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세웠던 계획 'BIG3'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첫째, 1990년이 되기 전 결혼하기
- 둘째, 결혼 후 5년 내 두 명의 아이 갖기
- 셋째, 본인 명의의 아파트 갖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이 모든 계획들을 실현시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989년,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셨고, 1990년 10월에는 저의 형이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약 3년 후 1993년 11월에는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날 당시, 20평이 채 되지 않던 작은 전세 빌라에 살고 있던 저희 가족은 제가 네 살 되던 무렵, 20평대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첫 집이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오직 본인 힘으로만 이뤄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사 후에도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매일 가계부를 기록하며 꼼꼼한 생활을 하시는 등 두 분은 더 꿈을 그리며 저희 가족의 행복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아버지의 삶에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이제 막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즈음 밤이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방안에서 무엇인가를 두고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다르게 두 분의 불화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문제가 단순하게 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결론 내리셨고 시댁과 친정의 도움을 모두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버지의 일과 직장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졌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댁과 친정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이 많아졌고 그 기간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창 초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던 형과 막 초등학교생이 된 저는 3년간 무려 다섯 번의 전학을 다녀야했습니다.

5장.

설상가상, 인생 최대의 위기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였을까. 결국 모든 가족들의 힘이 합쳐진 가운데 아버지는 끝내 어머니와 의견차를 좁혔고 두 분은 강원도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잠정적 합의를 내렸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본인이 계획하고 있던 많은 걸 포기하셨고 아내와 자식을 가장 우선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간 직장생활을 하며 한푼 두푼 모아뒀던 모든 돈을 모아 100여 평이 넘는 3층 빌딩을 짓고 그곳에서 다시 가정을 잘 꾸려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한 땅을 매입한 후 집을 짓는 과정 중에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억 단위의 돈을 사기당한 것입니다. 사기범은 이미 전례가 수차례나 있었고 사기는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뤄진 탓에 대응할 방법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한창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의문의 남자들이 찾아와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아버지가 이에 대해 무관심 대응을 하자 회사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가버리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저희 가족은 당장 살 집 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2년 가까운 시간을 고모네 집에 얹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집안과 관련해서는 상상하기조차 싫었고 학교에 가면 방황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있는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형 또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 학업과 가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무엇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의 관계도 다시 악화되고 두 분은 이혼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날,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으셨습니다. 집도, 아내도, 돈도 그리고 어쩌면 꿈도.

6장.

죽고 싶어도 살아가야 할 이유, ‘가족’

2005년, 아버지에게 남은 것이라곤 안타까워하는 가족들과 방황하는 자식 둘 말고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고모께서 며칠 간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가 이상하게 느껴져 회사 직원들을 통해 아버지에 대해 여쭙았는데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즉시 고모는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당시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매 순간을 긍정과 열정으로 버텨온 아버지였지만 갑자기 한 번에 닥친 이 모든 위기와 불행을 견디기는 쉽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할머니께, “엄마, 나 세상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노발대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되돌아보라. 얻은 게 많은지, 잃은 게 많은지. 네가 아무리 지금 다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 형편이 어렸을 때보단 훨씬 좋지 않으나. 거기에 너에겐 널 꼭 빼닮은 자식들도 있다. 나는 네가 세상을 포기하더라도 네 자식은 책임지지 않을 거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정말 너무나 가난해서 아무 것도 없던 시절을 되돌아봤습니다. 곰팡이 핀 김치, 간장을 먹으며 공부했던 그 시절을 회상했고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위해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자수성가하겠다는 그 꿈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어린 두 자식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세 시간씩만 주무신 채 식당과 공장 일을 병행하며 돈을 벌었고 그 와중에 저와 형의 밥을 챙겨주기 위해 매일 2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셨습니다. 고모는 아버지를 데리고 다니며 각종 동호회나 모임에 참석하는 등 아버지가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할아버지께서는 사기 때문에 짓다가 만 집을 직접 짓겠다고 나서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하며 살아오셨지만 할아버지는 직접 사람을 고용하시면서 2년 가까운 시간을 매일 집 짓는 현장에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있던 짐들을 가족 한 명 한 명이 나눠가지면서 아버지는 다행히 우울증을 회복하실 수 있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엄청난 3층 빌딩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 포기하고 죽고 싶었지만 꼭 살아가야 할 이유, 아버지께겐 ‘가족’이 있었습니다.



7장. 속 감아먹는 작은 아들 이야기

안정을 찾은 아버지는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술에 대한 우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회사직원들 중 누구라도 아버지 이름을 들으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릴 정도였습니다. 직원 동료들과 사이도 정말 좋아졌고 주말에는 배드민턴 동호회나 등산을 가는 등 사회생활도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또한 사기를 당해 빚진 많은 돈들도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삶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직접적인 신경을 쓸 수는 여유가 생기셨지만 한창 성장기에 있던 형과 저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형은 10년 가까이 지속된 가정 문제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저 또한 가정사의 여파로 중학교 입학 후에도 끝없이 방황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중학교 졸업 당시 성적 미달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입학하지 못하자 아버지는 지난 10년간의 생활에 큰 죄책감

을 느끼셨습니다. 모든 것을 본인 탓으로 돌린 채 어떻게든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길을 알아보셨습니다. 결국 저는 두 번의 전학을 거쳐 분당에 있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당에 간 후에도 아버지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 지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학구열이 뛰어난 분당 지역의 친구들과 경쟁하기 위해 매달 100만원 가까운 돈을 사교육비로 쓰셨고 제게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매달 50만원에 가까운 용돈을 주셨습니다. 또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 주말마다 강원도에서 분당까지 올라오셨고 오실 때마다 신문에 담긴 논술칼럼들을 오린 후 모아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아버지의 진심과 기대에 보답하고 싶었고 바뀐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초가 부족했던 고등학교 1학년 시절, 학원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면서 꾸준히 공부했고 방학에는 도서관에 가서 하루 10시간씩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노력과 제 노력이 합쳐지니 그 결과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 되어 제게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치른 첫 시험에서 문과생 200여 명 중 전교 8등을 기록한 것입니다. 후에도 계속해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간 저는 서울 상위권 대학 입학의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능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매년 1등급을 받던 과목이 4등급이 나오는가 하면 그 외에 다른 과목들도 모두 평소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나 저나 실망감을 감출 순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지난 3년간 저를 위해 너무나 많은 돈과 에너지를 쏟은 탓에 재수는 아니라는 결론을 못 박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정시로 아버지의 모교이기도 한 단국대학교의 국제통상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입학한 저는 삶의 허무함, 대학생활의 실망감,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 등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였고 결국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끝으로 학교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매일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은 매일 돈만 쓰면서 친구들과 놀러 다녔고 ‘어떻게든 되겠지’하며 체념과 방관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1학기가 끝난 후, 집에 성적표가 발송되었고 평점 1.83의 학사경고장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한 아버지는 정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지난 3년간 투자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선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네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결과론적으로 수능을 못 본 것은 너의 책임 아니냐?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너랑 너 형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버지는 다시 한 번 삶의 큰 상처를 입으셨고 큰 고민 없이 제게 강경책을 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휴대폰, 노트북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 아버지로부터 받는 돈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반납하게 한 뒤 저를 집에서 내 쫓으셨습니다. 또한 대학교 자퇴를 권하셨고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집에서 쫓겨난 저는 할머니 댁에서 생활했습니다. 20년간 제 힘으로 돈 한 푼 벌어난 적 없던 저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처음으로 전단지 돌리기, 카트 정리하기 등 다양한 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을 안 다녀도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삶의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막상 아르바이트를 해보니 생각한 것만큼 돈을 버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일하는 와중에 상사들로부터 모욕과 비난을 듣거나 몸이 아픈 날 일을 나갈 때는 느끼는 바가 더 컸습니다. ‘내가 지난 20년간 살아온 것은 아버지의 엄청난 헌신과 노력 덕분이어구나. 그것이 없는 지금의 나를 보니 정말 꺾데기만 있는 삶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제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큰 그림(Big Picture)’이라고 믿었고 정말 아버지가 저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깨끗하게 일하며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도서관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A4용지 한 장을 빼곡 채운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약 두 달 후, 아버지와 처음으로 대화를 가졌습니다.

“학교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제가 누렸던 당연한 것들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학교로 돌아가서 정말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저의 마음을 말씀드렸고 제가 열심히 번 돈을 단 돈 천 원도 쓰지 않고 모두 드렸고 50여장의 반성문도 함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길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누구 탓도 하지 않겠다. 나도 내 역할을 잘하면 너도 너 역할을 잘 하리라 믿는다.”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이혼, 그리고 저의 학사경고를 경험하면서 절대 본인의 힘과 노력만으로 타인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행복해야 본인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9장.

아버지의 전성기

아버지 본인의 이혼, 아들의 학사경고 등 술한 아픈 경험들은 아버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외로워할지도 모를 아버지를 위해 여러 여성분들을 소개했지만 그 때마다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꿈에 대한 열정과 실현을 위한 열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더 이상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정말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열심히 일하셨던 아버지는 2013년 초, 강원도 한 시의 지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초특급 승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발령받은 이 지사는 전국 KT 지사 중 실적이 최하위인 곳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부여된 일종의 과제와도 같았습니다. 앞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사의 타오르는 불을 끄기 위한 소방사로 투입되었지만 매년 결과는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가 없었지만 아버지는 오로지 현재만 생각하시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사장이었지만 신입사원처럼 업무를 하셨습니다. 이 지역의 수많은 군부대에 직접 들어가 업무를 보심은 물론 실적 향상을 위해 주변 어떤 지역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4년 초, 2013년에 대한 실적보고가 있던 날, 보고 결과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담당한 지사가 강원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사 중 전체 1등의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단 1년 만에 최악의 지사를 그야말로 최우수 지사로 탈바꿈시켰고 아버지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단 번에 역대연봉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에게도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전성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2014년, KT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했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50대를 넘은 직원들은 정리의 대상이 되었지만 아버지에게는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2014년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성과를 낸 아버지는 정말로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본인 경력의 최종 꿈을 이루셨습니다. 2015년, 아버지는 KT 강원지역의 핵심지역이자 7개시의 거점이 되는 시의 지점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정확히 10년 전, 이혼과 사기 등 최악의 상태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생각했었던 아버지는 이 순간만을 기다리며 버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을 이룬 후에도 아버지는 늘 겸손함을 유지하셨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일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으셨습니다. 지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셨지만 늘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했고 직접 고객들을 관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점장이 된 첫 해에 바로 또 한 번의 전국 실적 1위를 기록했고 아버지의 연봉은 또 한 번 수직 상승했습니다. 커리어의 꿈과 함께 그토록 바라던 ‘자수성가’의 꿈도 이뤄내는 순간이었습니다.

10장.

꿈을 이루신 아버지를 보며 꿈꾸는 아들

전성시대를 달리는 아버지께선 이전과는 다르게 저에게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은 채

무엇이든 제가 스스로 하도록 자율성을 주셨습니다. 간섭이 사라지고 나니 솔직히 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잘해야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었고 아버지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혹은 아버지 이상으로 잘 되고 싶다는 꿈과 야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학사경고를 받은 후 힘겹게 복학한 저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고 정말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복학 첫 학기 '수석'을 하겠다는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 수업시간 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았고 수업이 끝나면 그 즉시 도서관에 가서 복습과 정리를 했습니다. 또 과제가 있으면 부여받은 그 당일 날 해치웠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도서관 3-4층에 가서 전공서적을 살펴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공서적을 거의 모두 외우다시피 공부한 저는 복학 첫 학기 4.39의 성적으로 수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학기 공부를 했고 4.5학점 세 번을 포함해 7학기 동안 누적평점 4.38을 받았습니다. 입학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던 저는 국제통상학부 수석 졸업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1학년 2학기 방학 때는 도서관에서 하루에 무려 14시간씩 토익 공부에 몰두했고 입학 당시 500점 중반이던 점수는 단 번에 900점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에 자신감이 붙자 토익멘토링, 논문번역, 통역봉사 등 다양한 일을 접했고 영어와 관련하여 다양한 수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무 기간 중에 무역 3종이라고 불리는 국제무역사, 무역관리사, 무역영어 1급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였고 작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학 후 3학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진짜 무역을 해보자'라는 꿈이었습니다. 학점도 영어도 자격증도 모두 갖췄지만 실제로 무역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터라 꼭 무역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2016 한중교량 KEEP 프로젝트'에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취지의 공모전이었습니다. 중국어를 단 한 마디도 할 줄 모르는 제게는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아 보였지만 저의 강점은 약점을 상쇄할 만큼 강력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반드시 그것이 면접위원님들 마음에 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면접 당시 면접에 필요한 PT 100장외에 논문 60여장을 추가로 써 가지고 가서 면접 위원들에게 제 열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이 공모전에서 전국 10개 팀에 최종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후 알게 된 것이지만 전국 10개 팀 중 유일하게 지방대생임은 물론 중국어를 할 줄 모르고 중국에 한 번도 가지 않은 학생은 저 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꿈을 이루니 큰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저의 무역 전공 발전 가능성을 높게 샀고 저를 전공분야 100년 장학생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그 덕에 졸업 시 까지 매학기 전액장학생은 물론 매학기 30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받으며 4학기 동안 약 3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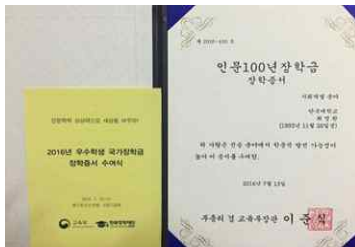
모든 것이 술술 풀려나가자 제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이 커졌고 저는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가서 무역을 해보자.'라는 꿈이었습니다. 유학원이나 어학연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두려움이 컸지만 전화영어를 통해 키운 영어실력으로 세 번의 영어인터뷰를 거쳐 워싱턴 주에 위치한 'STI Seattle'이라는 무역회사에 구매부서 해외인턴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1년 2개월간 '글로벌 무역가'라는 꿈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게다가 인턴생활 기간 중 모은 약 1,500만원의 돈으로 15개국 37도시 자유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국대학교 학생강연단 '단올림'이라는 이름으로 저의 멋진 대학생활을 학우 및 후배님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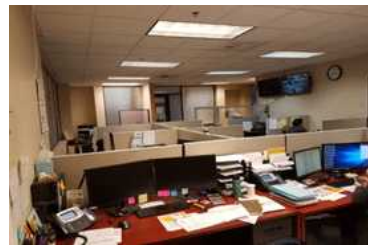
가정 파탄은 물론 아버지의 끝없는 추락을 지켜봤을 때만 하더라도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고생만 할까.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아버지를 보며 저 또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연도	학기	학점	학점비율	평균	평균비율	영학	영학비율
2011	1학기	4	10	8	8	Y	Y
2011	2학기	3	17	17	45	100	Y
2012	1학기	3	2	2	5	Y	Y
2012	2학기	3	16	16	45	100	Y
2013	1학기	2	31	31	420	100	Y
2013	2학기	2	0	0	0	Y	Y
2013	3학기	2	2	2	2	Y	Y
2013	4학기	2	19	19	420	100	Y
2012	2학기	1	19	19	420	100	Y
2012	1학기	1	9	9	45	100	Y

<7학기 누적평점 4.38 - 학부수석>



<한국장학재단 전공 장학생>



<미국 해외인턴 STI Seattle 내부>

11장. 감사합니다, 아버지

작년 8월, 제가 25살이 될 때 까지 여행 한 번 가지 않았던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하와이와 라스베이거스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제가 미국에 있던 터라 가족들을 초대했고 할머니, 아버지, 형 그리고 저는 숨 멎는 자연광경 속에서 최고의 휴가를 보냈습니다. 얼마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이 자리에 오신 아버지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모든 꿈을 다 이루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검소한 태도를 유지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연 소득 기준으로 대한민국 상위 1%에 속하시지만 10년 동안 같은 구두만 신을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구두라도 한 켤레 사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신는 것이 멀쩡한데 왜 사냐고 그러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힘들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속에 무엇인가가 꿈틀거린다고 하십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전성기는 진행 중입니다. 물론 앞으로 위기는 또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단단해지셨고

양 옆으로는 멋지게 자란 두 아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맨날 문제만 있던 집안이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형과 저는 이제 그런 과거를 웃으며 회상하곤 합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이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또 이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아버지를 더 보며 자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힘을 내는 자식들이 되었고 '아버지'라는 가장 완벽한 세 글자는 저희에게 최고로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달려오기만 하신 아버지에게 분명 휴식이 필요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혼자가 아닐 아버지, 늘 가정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